

시온 주보

제2452호

2023년 6월 18일(가해)

연중 제11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한알의 밀 | 박정석 미카엘, 88x178cm, 레드케임 기법, 2012년, 의정부교구 공탄성당

입당송 | 시편 27(26), 7, 9 참조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제1독서 | 탈출 19, 2-6ㄱ

화답송 | 시편 100(99), 1-2, 3, 5(◎ 3c 참조)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이,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
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
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2독서 | 로마 5, 6-11

복음환호송 | 마르 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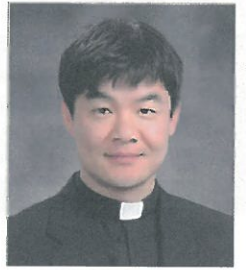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복음 | 마태 9, 36-10, 8

영성체송 | 시편 27(26), 4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
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허석훈 루카 신부 | 한강성당 주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어느 수도자가 그의 스승에게 “하느님을 섬기는 보편적인 길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사람들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배움으로 섬길 수도 있고, 기도로도 섬길 수 있는가 하면, 단식으로 섬길 수 있고, 먹음으로써 섬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기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 길을 가야 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느님을 만나 섬기는 것으로 같지만, 그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음 둘 곳 없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열둘을 뽑아 가까이 부르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며, 하늘나라를 선포할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직하지만 성미가 급한 베드로부터 세리인 마태오, 이성적으로 꼼꼼히 사고하는 토마스, 혁명당원인 시몬, 후에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람을 뽑아 세웁니다.

예수님과 기쁘게 동고동락할 친구가 열두 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열두 명의 사도들이 지닌 개성이 각각 너무 독특하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각기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매력에 열두 명이나 인생 전부를 걸고 모였다는 사실은, 정말 생각할수록 환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나와 다른 생각에 화나고, 화나서 다투고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서로의 개성이 충돌할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불리고 뽑힌 사람들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열둘의 제자들이 다양한 개성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였듯이, 우리의 삶 역시 이를 지향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 바라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가장 유용한 선물은 ‘정직한 자기 개방’과 ‘진지한 긍정의 시선’입니다. 누구도 타인에게 받는 긍정 없이는 자신을 기쁘게 수용하는 내밀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없고,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인정이 되는 따뜻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제자들이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섰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웃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마태 9.37)

신앙으로 이루는 추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노력으로 이뤄야 하는 것이기에,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스테인드글라스에 표현된 밀 이삭은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하려는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놓으신 그분의 사랑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감을 표현합니다. 우리 각자도 주님 안에서 스스로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고 사랑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해 봅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작품 설명



말씀의 이삭

한 주의 시작이 되어주신 주님



이기우'요셉 | 배우

중고교 학창 시절,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 한창 학업에 집중해야 했던 시기에 주일의 성당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좀 빼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 고3입니다. 악명높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다 아실텐데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도 고작 한 시간 정도의 미사 참례인데 몇 시간짜리 학원은 가면서 그 한 시간이 뭐 얼마나 길다고 빼먹나는 등 토요일 밤마다 제 안의 사탄과 천사의 갑론을박으로 고뇌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사탄이 포기한 채 주일을 맞이했지만, 일요일을 온전히 쉬고만 싶었던 10대 이기우의 마음은 참 간절했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아침이 되면 저희 가족도 여느 가정처럼 미사 갈 준비에 항상 분주했습니다. 평일에는 저희 형제는 학교로, 어머니는 가사일을 하시는 집안에, 아버지는 투석을 받으시던 병원으로 흩어지는 게 일상이었다면 주일만큼은 모두가 서둘러 준비하고 부랴부랴 집을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며 한 차에 올라 성당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제 몸과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대부분 흩어져서 미사를 드렸는데 형은 주일학교 교사로, 저는 봉사 단체 자리로, 어머니는 레지오로, 아버지는 성가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 너무 자연스럽게 성당 앞 마당에서 하나 둘 셋 넷 모두 만났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비슷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 답소를 나누는 교우분들, 자녀나 부모님을 기다리는 가족들 속에서 성가대원들과 밝게 인사를 나누며 가장 늦게 나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한 저는 그제야 시선을 돌릴 수 있었는데, 그때 문득 돌아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유난히 맑고 화창했던 그날의 모습이요.

성당 앞마당을 가득 채운 신자들과 그들을 보듯 팔을 벌려 온화한 미소로 함께하고 계신 성모상의 모습 뒤로 파란 하늘과 새하얀 뭉게구름이 펼쳐지는데, 어찌나 평화롭고 따뜻하던지 아침까지 무거웠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충분히 신 것 같은 기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만큼은 쉬면서 하고 싶었던 제가, 지금 바로 한 주를 시작해도 될 것만 같은 기운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살피시는 좋으신 주님과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우리 가족이 있으니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욕심대로 쉬며 주님 밖에서 한 주를 마무리하려 했던 저의 마침표를 어떤 어려움에도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시작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 커다란 십자로 바꿔주신 그날의 기억이 딱 이맘때 6월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40대로서 그때와는 다른 숙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지만 어김없이 늘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긍정의 에너지로 행복한 한 주를 시작해 봅니다.



“저승에 가시어”? “하느님은 어디까지 함께 계시니까?”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수난과 돌아가심에 이어 ‘저승에 가심’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는데요,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 사도는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천만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사도 2,24-28 참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므로 죽은 이들에게 가신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에게 당연했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죽은 이들과 함께 계셨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셨음은 바로 서간에서 예수님을 ‘땅의 낮은 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켜진 분이라고 고백할 때에도 전제되어 있습니다.(로마 10,7; 콜로 2,12 참조)

그럼 예수님께서서는 거기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첫째 서간에서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3,19) 하시고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4,6)라고 전합니다. 이 때문에 종종 이 상황을 그린 성화에서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힘차게 묘사됩니다.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지요?

한편 신학자 중에서는 저승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세기에 테르툴리아누스는 성자께서 인간 죽음의 모든 법칙에 스스로를 적용시키셨다고 보았고, 성 이레네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상태를 취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이는 저승에 가게 되는 단계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그

가 우리의 악행을 짊어졌고, 우리의 고통을 참아 받았다’고 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죽으셔야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저승에서 구하시기 위해서는 저승에 내려가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교부들의 이런 말씀은 저승에 가신 예수님을 개선장군처럼 이해하기 보다는 저승에 있는 인간들과 같은 처지에 계셨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죽은 이들이 머무는 곳인 ‘저승’은 구약성경에 따르면, 하느님과 어떤 친교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시편 6,6) “저승은 당신을 찬송할 수 없고 죽음은 당신을 찬양할 수 없으며 구령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당신의 성실하심에 희망을 두지 못합니다.”(이사 38,18)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죽음과 그 결과인 죽음 이후의 상태까지 당신 것으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승에 가시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드러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그분도 겪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사실 하느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승에 계신 예수님을 개선장군으로 볼지 말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아닐까요? ‘저승에 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사울의 회심- 바오로는 누구인가? (사도 9,1-31)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뭇자리 담당

사도행전은 8장에서 교회가 당한 박해가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제 루카는 9장과 10장에서 사울의 회심(9,1-31)과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 사건(10,1-48)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전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오로의 회심 사건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참으로 어렵고 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줄 증언자들은 많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증거자는 사도 바오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오로의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 일대기를 잘 그려주면서, 특히 사도 바오로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전해줍니다. 그것도 총 세 차례씩이나 언급합니다.(9,1-31; 22,4-21; 26,9-18)

사도 바오로는 필리피 교인들에게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벤야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필리 3,5)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바오로가 얼마나 충실한 유대인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바오로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될 때, 자신을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조상 전래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사도 22,3)을 받은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회심 전에 어느 누구보다 율법에 충실했고, 율법 공부도 성실히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회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사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합니다.(신명 21,22-23)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하느님께 저주받은 자로 취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국 율법에 충실했던 바오로는 자신이 배운 규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바오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이 멀게 됩니다. 성경에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시각을 잃었다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 전, 즉 신앙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제 바오로에게 삶의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오로의 전환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전 존재와 방식이 바뀌는 대 전환입니다. 율법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을 향한 변화이고, 업적 중심에서 은총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 중심으로 변화되었듯 말입니다.



신학연구소의 푸른 금식



이명서 비오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오늘은 저의 일터였던 서강대학교 신학 연구소를 푸르게 변화시킨 사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연구소는 지구 위기를 연구하며 소비와 편리함의 문화에 반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학술지와 발표문들은 한 번 읽힌 후 버려지거나 쌓여갔습니다. 연구조교였던 저는 종이 더미로 하얗게 질린 책상을 보며 '종이 퇴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천 안에서 신학연구소는 매년 탄소배출량 약 700kg을 감소시킨, 종이 없는 푸른 연구소가 되었습니다.



지구 돌봄 실천 전 학술지가 쌓여있는 연구소

첫째, 만약을 위한 소비는 그만!

신학연구소엔 늘 종이 가 쌓여 있었습니다. 연간 1,400부의 학술지 발행과 함께 1,400개의 우편 봉투 및 스티커를 소모해왔습니다. 여유분을 위한 재고도 꾸준히 쌓였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학술지 부수를 대폭 줄여 도서관 비용을 제외하고 전자출판물 진행했습니다. 실물 발행 수를 줄이자, 발송에 사용되던 우편 봉투와 접착 스티커의 양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통 시 발생하는 측정 불가한 탄소배출의 문제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둘째, 일회성 자료도 그만!

연구소의 학술 발표회 및 회의 자료도 PDF 파일로 문서 전자화를 했습니다. 이전까지 발표 1회에 약 20장 분량의 논문을 평균 15인에게 배포하여 약 300장의 종이를 소모했습니다. 또한 회의와 업무에 사용되는 자료까지 계산하면 수백장의 종이가 한 두 번 읽고 폐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는 인터넷의 드롭박스 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모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접근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던 일회성 자료를 전자화하여 대체하자 연구소에서 종이 더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안 쓸 땐 전원 끄기!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 문서화를 추진하면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편리함을 위해 항상 연결되어 있던 기기의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집에서 물건 안 쓸 땐 전원 끄기! 연구소에서도 쉽

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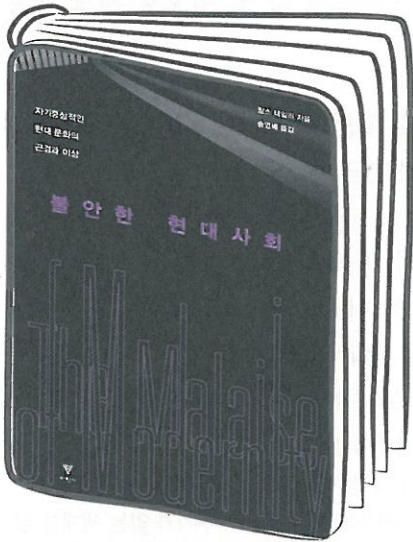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 끄기

넷째, 활동 알리기!

신학연구소에서 소비 감소를 실천 후, 신학대학원 동문들에게 활동을 알렸습니다. 나아가 현장 학술 발표회에서도 자료를 전자문서로 배포하며 종이 없는 연구소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조용하면서도 힘찬 알림이자 독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소는 (1) 연간 종이 소모량 약 85% 감소 (2) 학술지 발행 3회 기준 연간 탄소배출량 약 700kg 감소 (3) 대기 전력 차단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기를 아끼는 아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 어딘가에서 작은 실천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시작된 저의 실천도 이제 막 한 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의 작은 생태적 회심과 실천을 쫓다 보면 어느새 <천미밭오소서>의 여정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도서 '불안한 현대사회'

청년에게 다가가기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보람 있는 시간도 많았고 안타까운 시간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안타까움 중 하나는 청년들과 교회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의미를 찾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지혜의 보물이 있는데, 양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은 교회에서 지혜를 배우고, 교회는 청년에게서 생기와 열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청년과 교회 사이 다리놓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걷는 예수님! 두 제자는 실망에 차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다가갈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이야기에 먼저 경청을 합니다. 것처럼 교회도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희망과 기쁨, 실망과 두려움을 듣는 데서, 교회와 청년의 만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청년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개인주의와 세속에 대한 감수성이 청년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테일러는 이에 좋은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그는 『자아의 원천』, 『근대의 사회적 상상』, 『불안한 현대사회』라는 책과 아직 한글 번역본이 나오지 않았지만 『세속의 시대(A Secular Age)』라는 책으로 한국의 인문학 지식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합니다.

교회는 테일러에게 2019년 라칭거상(요제프 라칭거-베네딕토 16세 재단이 신학적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수여함으로써 그의 철학적 작업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수여 연설을 통해 테일러의 지적 작업이 "피상적이거나 운명론적 낙심에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서구의 세속화를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라고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문화를 성찰하는 데 뿐만 아

니라 깊은 대화와 식별을 하려면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시대 안에서 신앙을 살고 증거하며 표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라고 그 작업의 의의를 짚었습니다.

테일러의 저서 중 『불안한 현대사회』는 개인주의를 이해하는 데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과의 대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는 서구 역사에서 개인주의의 빛과 그림자를 깊이 있게 통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개인주의로 인한 삶의 의미 상실'이라는 현대사회의 '질병'이 되어 불안의 원천이 되고 있는지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현대인, 특히 청년들에게서 잘 보이는 진정성과 상호 존중에 대한 추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대주의나 무관심, 파편화, 여러 형태의 중독, 분노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연민을 갖고 경청하고 동반할 수 있는 지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7 WYD 유치 및 개최 준비위원회’ 위원 임명

위원장: 손희송 주교(총대리)
 부위원장: 양주열 신부(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위원: 김세진 신부(사목국 행정지원팀), 김재현 신부(통합사목연구소 부소장), 이희천 신부(중계동 본당 부주임), 나연수 신부(목동 본당 부주임), 정성윤 신부(통합사목연구소 부소장), 이재협 신부(홍보위원회 언론홍보), 김광두 신부(사목국 기획연구팀)

교구 건축 거시 계획 TF 신설 및 위원 임명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부위원장: 손희송 주교, 유경춘 주교, 구요비 주교
 위원: 조학문 신부, 안병철 신부, 박희원 신부, 홍근표 신부, 임인섭 신부, 정영진 신부, 김한석 신부, 조성풍 신부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영명 축일 미사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영명 축일 미사가 6월 29일(목) 오전 11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교구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6월 24일 윤의병 바오로 신부(60세)
 - 1950년 6월 25일 김경민 루도비코 신부(48세)
 - 1978년 6월 21일 서우석 요한 신부(44세)
 - 1984년 6월 25일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82세)
 - 2021년 6월 19일 신광호 베드로 신부(44세)
- *1950년 6월 24일 선종하신 윤의병 신부님은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 중 한 분으로 한국전쟁 중 순교한 분입니다.

6월 24일(토)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6월 29일(목)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2차 헌금 및 9일 기도

1) 단식 모금 운동(2차 헌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며 6월 23일(금) 한 번의 단식을 하고, 이 단식을 통하여 모금된 성금을 6월 25일 주일미사에 2차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2) 9일 기도 봉헌(6월 17일~25일)
 미사 전이나 후에 기도문(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함께 봉헌

첫째 날	6월 17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둘째 날	6월 18일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셋째 날	6월 19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하여
넷째 날	6월 20일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섯째 날	6월 21일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여섯째 날	6월 22일	이산가족과 탈북민을 위하여
일곱째 날	6월 23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여덟째 날	6월 24일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아홉째 날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구청 알림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제50회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한국-바티칸 외교 수립 60주년’ 기념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전관
 전시일정: 6월14일(수)~22일(목)

2023년 월요 성경통독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의 + 미사) 온라인 동시 강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시복시성 기원미사 · 순교자현양회 전례단원 모집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1) 이 달의 히느님의 종 ‘원요일 요한 세례자’
 때: 매월 셋째주(화) 6월20일 오전 10시(187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2) 순교자현양회 전례단원 모집
 대상: 전례봉사(해설, 독서) 관심있는 62세 이하 교우, 전례봉사 경험있는 분 환영
 활동: 순교자현양회 시복시성기원미사(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전), 순교자 현양 행사 미사 등

2023년 청년 피정

주제: 성 · 생명 · 사랑의 길
 대상: 만 20세~39세 미혼 남녀
 때, 곳: 7월1일(토) 13시30분~2일(일) 16시(1박2일), 끈넌 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피정의 집(용산구 한남대로 90)
 회비: 5만원(전 일정) / 6월21일(수)까지 접수
 주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한국틴스타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가톨릭영성심리 치유와 봉사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대상: 만 20세 이상, 고졸이상 가톨릭 신자
 교육기간: 9월~2024년 6월 / 모집기간: 6월19일~7월31일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kr)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73차 미사 6월2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본당: 평양교구 의주 본당, 강계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제45회 가톨릭 에코포럼

주제: <토마스 베리 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대상: 일반신자, 수도자, 성직자 누구나
 때: 6월28일(수) 19시~21시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강사: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송영민 신부(대전 가톨릭대학교) /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하계 오르간 릴레이 세미나(성음악위원회)

대상: 각 본당 오르간 반주자(평일 미사 반주자 포함)
 때: 7월8일(토) · 7월15일(토) 10시~17시(2회 필수 참석)
 접수 및 등록: 6월7일(수)~23일(금)까지
 접수방법: 아카데미 홈페이지(www.casm.co.kr) 참조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중림동)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

인준단체 알림

모임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3박4일)
회비: 75만원·115만원 / 문의: 010-3645-9028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반장 구역장 레지오 단원 1일 피정

곳: 살레시오회 교육관(신길동) / 수시 접수
문의: 02)828-3522 살레시오회 관구관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7월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7월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7월21일(금)~23일(일), 명상의 집(우이동)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고 마르타 수녀

평화의 모후 청년 켈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7월15일(토), 성거산·남방제성지(대전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사전접수 필수

역삼동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 B1 경향당(주차 가능)
문의: 010-4667-3792 11지구 성령봉사회

6월23일	양홍 신부	6월30일	이상기
-------	-------	-------	-----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17차	7월21일(금)~29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18차	8월11일(금)~19일(토)	
제119차	9월8일(금)~16일(토)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효소단식	6월22일(목)~25일(일), 7월20일(목)~23일(일)
성경완독	7월7일(금)~15일(토), 8월11일(금)~19일(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역여행 이사야서	7월28일(금)~30일(일)

파티마의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회와 미사

내용: 오후 2시 로사리오 기도, 오후 3시 미사 봉헌
준비물: 묵주, 미사 준비 /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02)3142-4434 절두산 순교성지

7월13일(목)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집잔 구요비주교
8월13일(일)		집잔 정순택대주교
9월13일(수)	절두산 순교성지	집잔 두봉주교
10월13일(금)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집잔 염수정 추기경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성독) 입문 피정

때, 곳: 8월3일(목)~6일(일), 수리치골 성모성심의집
회비: 38만원(1인실) / 지도: 허성준 신부(외)
문의: 010-8599-3127 한릿다(왜관 성 베네딕도회)

성모 승천 전례 피정

때: 8월13일(일) 16시30분~15일(화) 13시30분
곳: 왜관 피정의 집(주최) / 회비: 25만원
계좌: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6월23일~26일·7월7일~10일·7월28일~31일·8월
4일~7일·8월18일~2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6월23일~25일·7월22일~24일·7월28일~30일
·8월1일~3일·8월19일~21일·8월27일~29일·8월
29일~31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8월5일~8일·8
월11일~14일, 추자도성지 포함 자연순례 7월1
일~4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하부내포(1·2) 성지순례 / 문의: 010-3807-1784

출발: 7시30분, 서울 명동(대행버스) / 회비: 1인 6만원

1지역	8월15일, 오성바위(음봉)·완장포구(웅천)· 서짓골성지·삼터성지·도양골성지(도보 순 례)·만수리 공소(미사)
2지역	9월16일, 새만금신시도·불무골·산막골(미 사)·작은재·독피(도보 순례)·지서리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7월21일~23일, 8월26일~28일
여름특별 피정 (우도 자유 일정 포함)	7월29일~31일, 8월4일~6일, 8월9일~12일
성지순례 (추자도성지 포함)	9월10일~13일, 10월7일~10일, 10 월15일~18일, 11월4일~7일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6월23일(금)~25일(일)	김권일 신부(청주교구)
7월14일(금)~16일(일)	정남진 신부(원주교구)
8월18일(금)~20일(일)	민범식 신부(서울대교구)
9월15일(금)~17일(일)	배영호 신부(수원교구)
10월20일(금)~22일(일)	전현호 신부(대구대교구)

교육

젊은이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마리아론 공부 / 문의: 010-2724-4819
때, 곳: 7월23일~2024년 4월28일 매월 넷째주(일)
10시~16시(10회), 가톨릭회관 311호 / 점심 제공

성가발성 노래교실

'다함께 성가'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디나음악원(주최, 신촌)
문의: 010-9842-8818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luke153연구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회)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7월3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6월27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초보자 화요일반 14시·금요일반 14시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주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 김영훈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
때, 곳: 7월2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2023년 북방선교회 교육특강

대상: 북방선교 후원회원들과 관심있는분 누구나
강사: 최봉근(ICPE, 청년 선교단체 회장) / 회비 없음
때, 곳: 6월26일(월) 13시~14시50분·15시10분(파견
미사),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10-6219-1575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이태리어·스페인어

7월~8월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 7월3일~5일(강좌별로 상이함) / 회비: 32만원
주2회 2시간씩 총 30시간, 8주 과정 / 원어민을
포함한 우수 강사진, 입문~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여행이나 순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 환영
문의: 02)705-8718(http://sccc.sogang.ac.kr)

수어(手語=수화) 교실 개강

곳: 프살 배움센터(성북구 종암동)-서울가톨릭농아
선교회부설(주최) / 02)941-1880(learning4@daum.net)
오전반 7월5일(수) 11시 저녁반 7월4일(화) 19시30분

예수회센터 여름 특강

7월 개강, 각 6주 / 현장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적 호소	문정숙 조경자수녀
(화)	우리가 모르는 교회론적 질문들	김민 신부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예언서	주원준 박사
(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회윤리와 여성	박상훈 신부
(목)	영성과 심리의 통합-불안정한 영혼의 영성 여정	최지원 수녀
(금)	이미지를 이용한 기도 방법	배영길 신부

수제 목주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삼성산 피정의 집 은사세미나

때: 6월20일~9월5일 매주(화) 21시30분~다음날 4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교재비 있음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
 봉사회 / 화요일야기도회 중에 은사세미나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신·편입생 2차 모집

문화영성학과(석사과정) /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6월19일(월)~7월2일(일)
 면접: 7월6일(목) 18시 예정 / http://gcs.catholic.ac.kr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반포) / 문의: 02)3147-8787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첫여성체 받은(2023년 예정) 초3~초6 가톨릭 신자
 오디션: 6월25일(일) 14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
 창단실 / 6월23일(금)까지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10-2650-8014 cpbc소년소녀합창단

미사

글라셋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6월19일(월) 11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
 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특강: 배형진 신부(인도 사제)
 때, 곳: 6월19일(월) 15시~17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6월26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국악성가연구소 월례미사-해의 성지순례

월례미사: 7월3일(월) 오후 2시
 순례: 9월8일~22일(14박15일), 터키-이스라엘(인
 술: 강수근 신부) / 문의: 02)558-2004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6월25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안내

코메스심리상담소 / 문의: 010-3201-0520

신심 좋은 전문상담사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
 드립니다 / 상담방법: 전화, PC(Zoom), 대면 모두 가능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
 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종합심리검사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가리마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운영시간(월~금)9시~17시, (화~목) 19시~2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중립동약현성당 2024년 1~3월 혼인예식 추천

때: 7월4일 15시 /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60만원
 주의사항-2024년 4월~12월까지 예약은 10월
 중에 추천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62-1891(www.yakhyeon.or.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30년(추가 30년 가능) /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깃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가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6월27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
 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한국 키로(CHIRO Korea) 모집

십사일반으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 신앙 양
 성하는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가 승인한
 FIMCAP 소속의 키로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대상: 초1~중3(선착순 모집 / 인터뷰를 통해 선발)
 때, 곳: 매일 첫째·셋째주 10시~13시, 햇살사목
 센터(종로구 혜화동, 주최) / 문의: 02)744-0840

직원모집

꽃동네 신내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요양보호사: 위생원(주40시간 근무), 파트타임조리
 원(주20시간 근무) 모집합니다 / 팩스: 02)3422-3512
 문의: 02)490-2609 / 이메일: sinkflower3@hanmail.net

자암2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444-8444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실제 업무 가능하신 분
 업무: 본당 시설물 관리, 영선, 미화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5106, 서울시 광진구 독성
 로58길81) 및 이메일(kclee115@seoul.catholic.kr) 접수

수서동성당 관리인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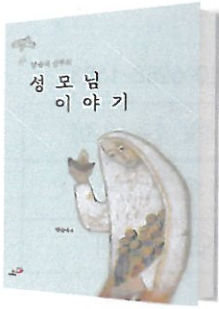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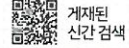
분야: 계약직 관리인(방호원) 1명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설바·소방·가스 소지자 우대)
 업무: 시설물 관리, 미화 영선, 기타 방호 업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6월24일(토)까지 방문·우편(우 06352,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99) 및 이메일(john24@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연락) / 문의: 02)2226-0231, 2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성북구) 주방 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향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
 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6월25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
 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
 (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살레시오회	매일 네번째(토) 14시	관구관(신길동)	010-6221-3520 유명일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6월25일(일) 9시	분원(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6월25일(일) 14시	아프리카잠비아 선교후원회(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양승국 신부의
성모님 이야기**

양승국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256쪽 | 1만5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신자들이나 비신자들이 궁금해하는 성모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가톨릭교회는 마리아고 아닌가요?” 하는 오해부터, 성모님을 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란 어떤 뜻인지 등등 섣뜻 답하지 못했던 질문들에 가톨릭교회의 사제가 간결하고 명쾌하게 답해 준다.



신간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

하찬욱 지음
생활성서사 | 216쪽 | 1만3천원
문의: 02)945-5987

문학과 음악, 영화와 미술이라는 다양한 우물에서 길어 올린 22편의 에세이다. 슬픔과 고통에 관한 성찰을 담은 이 책은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이에게 도움이 되고, 슬퍼하는 이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유연하고 넓은 사유를 갈망하는 독자들의 갈증을 달래줄 것이다.



신간
그리스도교의 오후

토마스 할리크 지음
분도출판사 | 344쪽 | 1만9천원
문의: 02)2266-3605

그리스도인은 물론 무신론자나 비종교인이나 성소수자에게도 말을 걸 수 있는 보편적 그리스도를 찾아나서는 신앙 여정을 탐색한다. 저자는 '인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역사와 미래를 그리고 있으며, 자치고 좌절한 지금 이 시대에 자기초월적 그리스도교와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독자들을 초대한다.



콘서트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우리 가곡**

때, 곳: 6월 22일(목)~23일(금) 19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 입장료: 전석 4만원
문의: 02)399-1000 세종문화회관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시(時)가 있는 무대(臺)를 뜻하는 <가곡시대>의 올해 주제는 말 그대로 우리 '가곡'이며 100년의 세월을 품고 함께 해온 우리 가곡을 시대 흐름으로 풀어낸다. 일제 강점기, 해방기, 한국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년의 세월을 함께 해온 우리 가곡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한다.



전시
**특별기획전 'Fall 仁 Love'
전시 체험 프로그램**

때, 곳: 6월 1일(목)~8월 20일(주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 상시 체험 프로그램, 사전 예약 체험 프로그램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seosomun.org>) 참조
문의: 02)3147-2407

유교의 仁을 통해 조선시대 선조들이 사랑을 배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모습을 살펴보는 상반기 특별기획전 'Fall 仁 Love'.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상시 체험 프로그램(느린 우체통, 서소문 해민서)과 사전예약 체험프로그램(지식을 나눠드립니다, 아트브런치 '폴 인러브')이 운영된다.



성가제
**제22회
cpbc 창작성가제
참가자 모집**

분야: 보컬 부문, 창작곡 부문, 보컬과 창작곡 부문
접수: (창작곡 부문) 6월 12일(월)~25일(주일)
(보컬 부문 보컬과 창작곡 부문) 7월 17일(월)~30일(주일)
문의: 02)2270-2633
카카오톡 오픈채팅 #창작성가제

“노래를 잘 부른다면? 작곡할 수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본격 오디션! 성가를 통해 찬양하고 싶은 분은 지금 바로 도전! 창작곡 부문은 6월 12일(월)~25일(주일)까지, 보컬 부문, 보컬과 창작곡 부문은 7월 17일(월)~30일(주일)까지 접수한다.

제2285(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류시창 베드로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 6월 25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음식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 박병훈 예로니모(예수회) 사제 서품 및 첫미사
서품식 : 6월 28일(수) 오후 2시 / 명동성당
첫미사 : 7월 2일(주일) 11시 미사 / 연회동성당
※ 첫미사 후 전신자 음식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 주임신부님(6월 29일, 베드로 축일)과
새신부님(6월 28일, 사제 서품)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영적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외에 개인별 봉헌은 성당 입구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6월 20일(화) 10시 미사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5월~6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이윤주	율리안나	1-3	이유훈	라파엘	3-1
장보배	세라피나	6-5	황현호	사도요한	8-2
조윤래	테레사	9-4	박세향	마리아	11-3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6월 25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병자영성체

일시 : 6월 30일(금) 10시 미사 후

◎ 성모신심미사

일시 : 7월 1일(토) 10시 미사

◎ 남성 울뜨레아

일시 : 6월 18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 울뜨레아

일시 : 6월 27일(화) 10시 미사 후 304호

◎ 비대면 청년기도모임 <프레희(喜)>

대상 : 연회동 청년 누구나
일시 : 5월 25일(목) ~ 10월 5일(목) 2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온라인(청년연합회 인스타그램(@youth.yh))
당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링크 공유 예정
문의 : 비아 회장 (010-2550-2375)

◎ 청년단체 홍보부스

청년연합회에 속해있는 여러 단체를 체험해보세요.
일시 : 6월 18일(주일) 9시, 11시, 18시 미사 전/후
장소 : 성당 마당
대상 : 청년 누구나
문의 : 비아 회장 (010-2550-2375)

◎ 청년여름캠프 (얼리버드 할인 안내)

일시 : 8월 25일(금)~27일(주일), 금요일 저녁 출발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청년 누구나
금액 : 70,000원
* 얼리버드 접수시 60,000원 / 학부생 50,000원
얼리버드 접수기간 : 6월 18일(주일) ~ 7월 2일(주일)
문의 : 비아 회장 (010-2550-2375)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6. 1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81	763 (36.7%)	724 (34.8%)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감사헌금

故 오기향 루시아 상가 삼십만원

◎ 감사헌금 (6월 5일~11일)

황금출오만원 익 명 일십만원
손영준오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김건민오만원 익 명 일십만원
정호민일십만원 이창수 일십만원
미라클합창단 일십만원
故 오기향 루시아 오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성체 성혈 대축일)

교 무 금8,000,000원
주일헌금5,836,300원

입당	16	봉헌	510, 219, 342	성체	504, 167, 182	파견	77
----	----	----	---------------	----	---------------	----	----



우리는 주님의 백 -- 성 그분목장의 양떼 라 베